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더 콘서트'는 음악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관한 영화다. 음악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삶과 그들의 음악 열정을 그린 작품. 루마니아 출신의 감독 라두 미하일레아누는 음악으로 다시 회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흠뻑 젖은 삶을 모아 모자이크 조각을 짜 맞추듯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갔다.

구소련 시절, 지휘자 안드레이 필리포프(알렉세이 구스코프)는 오케스트라에서 유대인들을 해고하라는 당의 지시를 어겨 지휘를 그만두게 된다. 30년 동안 불소이 극장의 청소부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파리 사투레 극장에서 보내 온 불소이 오케스트라 초청 편지를 가로챈다. 그리고 이미 해고당한 옛 유대인 동료들을 규합하여 불소이 오케스트라 행세를 하며 파리로 연주 여행을 떠난다.

라이막스를 맡겨버린다. 최후 심어본 동안 이 협주곡의 주요 선율을 모아 전 악장을 단숨에 들려준다.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관객들은 영화와 더불어 완벽하게 차이코프스키에 압도당하며 감동하게 된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명연을 꿈꾸려면 주저없이 이작 필만과 유진 오먼디의 협연을 이야기하고 싶다. 본 실험 공연은 영상으로 발매되어 있는데, 콘서트 자체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이작 필만이 목발을 쥐고 무대에 등장한다. 지휘자 유진 오먼디는 그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고, 필만은 오먼디에게 지휘봉을 건네준다. 그리고 무려 곡의 절반을 차지하는 1악

영화 '더 콘서트' 중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음악에 갇힌 삶을 위한 협주곡

필리포프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짧은 바이올리니스트 안느-마리 자케(벨라니 로랑)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

'더 콘서트'는 음악영화이지만 의외로 코미디라는 장르 속에서 움직인다. 때문에 음악과 함께 목격한 감동을 기대하던 관객들은 영화의 종반부에 이르기까지 당혹스럽다.

하지만 감독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콘서트 장면을 위해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을 준비한다. 왜 차이코프스키였을까? 사실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감동적인 음악은 아주 많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만큼 짧은 순간 완벽한 감동과 아름다운 멜로디를 다채롭게 선사해주는 작품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감독은 대담하게 아예 차이코프스키에게 마지막 막

장이 끝나자마자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에 감격한 청중들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버린다.(원래 클래식 음악은 모든 악장이 종료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관습) 물론 격정적인 3악장이 끝난 후에는 더한 기립박수가 이어진다.

필만의 연주는 선이 아주 굵으면서도 애처로운 감정을 잘 살리는 연주,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창조했던 유진 오먼디의 정교한 반주도 필만의 독주와 아주 잘 어울린다.

결국 이작 필만의 삶도 음악 속에 살고 죽는 삶이 아닐까?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그에게 바이올린과 음악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더 콘서트'는 음악과 삶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하는 한 편의 아름다운 협주곡 같은 영화다.

<독립영화감독, 음악칼럼니스트>



증심사 입구에 '승효상 벨리' 생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

자연과 예술 조화이룬 야외 공연장 문열고

우제길 미술관 리모델링·별관 설계 이어

인근 승감동 작품 잇따라 새 문화공간으로

을 겸한 공연장이 자리하게 된다. 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인근에 들어서는 건물의 설계도 모두 승 감독에게 맡겨, 서울 대학로의 '김수근 벨리'처럼 '승효상 벨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근 미술관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주택과 식당 건물을 세우려던 땅 주인들이 '승효상 벨리'를 만들자는 주민들의 권유에 따라 승 감독 측과 설계는 협의 중이다.

운림동의 유명 레스토랑이 이곳으로 확장 이전하는데 승 감독이 설계를 맡고, 한 예술가의 주택도 승 감독의 손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모임을 만들어 이후 들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 자연스럽게 승 감독에게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제길미술관 관계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더라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 "내년에 4체의 건물이 더 들어서는데, 승 감독에게 모두 설계를 맡기는 방안을 건물주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 프로젝트'처럼, 블록마다 책임건축가를 선정해 4~10개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블록별 책임건축가제'는 새로운 건축 흐름이다.

승효상 감독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인연으로 지역민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거절은 못했다"면서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 감독은 서울대 건축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김수근 문화에서 15년간 건축 실무를 익힌 뒤 1989년 건축사무소인 이모재 건축을 설립,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광주 동구 운림동에 승효상 감독이 설계한 야외 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사진 왼쪽은 우제길 화백의 조각 '입석대'.

낙향·유배가 만든 문화의 다양성

'인문학강좌Ⅱ' 이종범 교수...18일 상록전시관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 여섯 번째 강사가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이종범 조선대 사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와 '낙향과 유배-교유와 소통의 미학'을 주제로 낙향과 유배가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무오사화로 인해 최부(崔溥)와 박권(朴權)이 함경도 단성과 함경도 길성으로 유배된 이후 만들어진 유배문화, 기묘사화로 인해 호남으로 유배된 최산두, 윤



5391.

구, 유성춘의 이야기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교수는 서울대 인문대 국사학과,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 과정을 마친 뒤 UCLA 객원교수, 조선대 박물관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기억공간으로서의 길' 등이 있다. 문의 062-613-

수필가 장생주씨 '내 안에...' 출간

수필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장생주(70·사진)씨가 수필 선집 '내 안에 지리한 행복 하나'(문학관books 펴냄)를 출간했다.

40여 년을 교육자로서 살아오며 틈틈이 발표한 글 중 대표작 50여 편을 '한 잔 차에 들은 사연' '장미 한 송이' 등 6부로 나눠 엮었다.

특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에 '행복'이라는 답을 구하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인생 지침을 전하고 있다.

강진 출생인 장씨는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으로 등단했으며 대표예이문학회 회장, 모란춘문학동인회장을 역임했다. '허공을 지나는 한 점 바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 등 수필집을 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개구쟁이 스머프 (전제) / 블라인드 (18세)	1관 7광구 (15세)
2관 7광구 (15세) / 마당울나온양탈 (전제)	2관 명랑청년 (전제) / 리오 (전제)
3관 7광구 (15세)	3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제)
4관 7광구 (15세)	4관 최종병기 활 (15세)
5관 카우보이&에어리언 (15세)	5관 최종병기 활 (15세)
6관 블라인드 (18세)	6관 카우보이&에어리언 (15세)
7관 최종병기 활 (15세)	7관 블라인드 (18세)
8관 명랑청년 (전제) / 최종병기 활 (15세)	8관 퀵 (15세)
9관 퀵 (15세)	9관 7광구 (15세) / 블라인드 (18세)
10관 고지전 (15세)	10관 고지전 (15세) / 마당울나온양탈 (전제)
리뉴얼 오면 기념 B&B EVENT 5000원 상당의 경품행사	10관 개구쟁이 스머프 (전제) / 7광구 (15세)
달라진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영영안 정식이 무료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최종병기 활 (15세) **최고급관**
 2관 최종병기 활 (15세)
 3관 7광구 (15세) / 개구쟁이 스머프 (전제)
 4관 퀵 (15세)
 5관 최종병기 활 (15세)
 6관 블라인드 (18세)
 7관 고지전 (15세) / 카우보이&에어리언 (15세)
 8관 블라인드 (18세)
 9관 블라인드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O

1관 고지전 (15세) / 블라인드 (18세)
 2관 7광구 (15세)
 3관 블라인드 (18세)
 4관 개구쟁이 스머프 (전제) / 기생형 (18세)
 5관 퀵 (15세)
 6관 카우보이&에어리언 (15세)
 7관 퀵 (15세) / 최종병기 활 (15세)
 8관 최종병기 활 (15세)

색깔있는 영화선픽 *w.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